

千字文 研究(1)

李 基 文

1

年前에 千字文 몇 책을 모아 影印⁽¹⁾을 간행한 뒤로 筆者는 이들에 대해서 계속 큰 관심을 가져왔다. 筆者의 관심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千字文 刊行의 歷史를 비롯하여 매우 광범한 데 걸쳐 있지만, 특히 그 새김에 쫓겨 왔다고 할 수 있다. 國語의 歷史的 研究에 공헌하는 것은 주로 그 새김이기 때문이다. (漢字音 資料로서도 價値를 지니는 물론이다.) 따라서 筆者의 관심은 釋音 表記가 있는 千字文에 국한되어 왔다.

本稿는 筆者가 현재 千字文에 대하여 집필하고 있는 論文의 첫 부분이다. 글을 쓰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셋으로 나누어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千字文의 異本들에 대한 검토로 本稿를 삼고, 여러 千字文의 새김에 대한 歷史的 考察과 우리 나라의 여러 지방에서 아직도 존속되고 있는 傳統的인 새김과 字音의 調査 研究에 관한 부분은 別稿로 삼게 된 것이다.

本稿는 주로 우리 나라와 日本에서 石峯千字文의 內賜本과 大東急記念文庫 所藏의 千字文 一冊이 새로이 공개됨으로써 제기된 문제들을 논한 것이다. 이 두 책은 千字文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면을 열어 준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2

筆者가 소개한 光州刊本 千字文은 전반적으로 옛스럽고 간혹 可謂 충격적이라 할 만한 새김들을 보여주는 점에서 特記할 만한 자료의 하나다. 종래 15·16世紀의 여러 책에서 새김을 보아온 눈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1) 千字文. 東洋學叢書 第3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73.

새김들을 이 책에서 처음 보게 된 것이다. 이 책을 처음 대했을 때 어떤 神秘感에 휩싸였던 일을 筆者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우선 위에서 말한 影印本の 解題를 쓸 때에 미처 몰랐다가 그뒤에 알게 된 사실,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사실 등을 적어 보기로 한다.

筆者가 이 책을 본 것은 日本 東京大學 中央圖書館에 보관되어 있는 小倉進平 舊藏書 속에서였으므로 上記 解題에서는 이것을 小倉文庫本으로 소개했었다. 다만 小倉進平(1940)에 이 책에 대한 해설이 없는 점, 그의 藏書印이 없는 점, 卷末 刊記 옆에 日本人의 이름이 墨書된 점 등이 의아스런 느낌을 주기도 했었다. 이런 사실들이 筆者로 하여금 “日本에서 傳來된 것을 1940年 이후에 入手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나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다”고 쓰게 했었다. 그러나 그뒤 筆者는 梅田博之教授로부터 이 책이 1950年頃, 당시 東京大學 言語學科 학생이었던 鎌田光登氏가 東京의 어떤 서점에서 구입하여 졸업후에 언어학과에 기증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언어학과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역시 같은 곳에 있었던 小倉進平 舊藏의 古書들이 中央圖書館으로 옮겨질 때, 이 千字文도 그 속에 겨묻혀 옮겨진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筆者가 이 책에 대해서 느꼈던 의문이 풀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筆者는 上記 解題로 말미암아 이 책이 때로 小倉文庫本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때마다 한가닥의 불안을 느껴왔다. 이 책이 현재 小倉文庫 속에 섞여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위에 말한 사실을 덮어둘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의 刊記(萬曆三年月日光州刊上)에 의하여 “光州刊本”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믿는다.

이 刊記에 보이는 “刊上”이란 말에 대해서 筆者는 刊行과 비슷한 뜻으로 보아 별로 言及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정작 이런 표현을 가진 刊記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이 마음에 걸려 몇분에게 문의해 보기도 했었다. 刊行과 비슷한 뜻일 것이라고 한 분도 있었고, 中央의 官命으로 光州에서 간행하여 올린 것이라는 해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한 분도 있었다. 이 책이 간행된 宣祖 8年(1575) 무렵에는 서울에서 아직 이런 책이 간행되지 않았었으므로, 이 책을 中央에 올렸을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刊上”에 과연 이런 뜻이 있는지가 문제요, 이 책을 中央에 올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현재로서는 찾아 볼 수 없다.⁽²⁾

어쨌거나, ‘光州’는 全羅道 光州일 것이므로 이 책이 1575년에 그곳에서 간행된 것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본래 漢字로만 된 千字文이 있었는데 거기에 釋音表記를 넣어 板刻한 것으로 여겨진다. 上記 解題에서는 이 可能性이 희박한 것으로 썼었지만, 아무래도 이 可能性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위에서 이 光州刊本の 가장 큰 特徵이 그 새김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책의 전반적인 특징은 그 옛스러움에 있다. 그러나 이 옛스러움은 순수히 語彙的 觀點에서 하는 말이다. 音韻論的 觀點에서는 이 책은 그다지 옛스럽지 않다. 그것은 16世紀 中半 이전으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一例로 ‘△’을 보면 이 책은 이미 큰 혼란을 보여준다.

‘△’을 보존한 예들 : 日날실(1), 秋△술추(2), 冬겨스동(2), 弟아스대(15), 次△숨츠(16), 心△숨심(17), 富가수멸부(22), 譏우슬괴(30), 道아수라을쇼, 遙아수라을요(32), 威아숨척(35), 眠조수롬면(36).

‘△’을 보존하지 않은 예들 : 人사롬인(4), 讓지양양(4), 作지을작(9), 取아을취(12), 若△틀약(12), 映△일영(12), 初처엄초(13), 而마리어(14) 兒아히△(15), 規 여을규, 隱 그을은, 仁클인, 造지을조(16), 承니을승(20), 策무을척(22), 銘 조을명(23), 弱바드라을약(24), 農너름지을릉(28) 辱욕홀욕(30), 親어버이친(35), 頓조을돈(36), 嗣니을스(37), 續니을속(37), 任△옴임(39), 咲우음쇼(40), 每니으미(40), 照△일조(41).⁽²⁾

이런 혼란은 16世紀 後半의 文獻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8年 뒤에 나온 石峯千字文에 ‘△’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참고할 것이다. 한편 이 책에는 ‘官귀관’ (4)이 보인다. 15세기라면 ‘그위’요 16世紀에 ‘구위, 구의’ 등이 나타났지만, ‘귀’는 이 책에서 처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새김이 보여주는 語彙的 保守性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別稿에서 논할 생각이지만, 이런 새김도 16世紀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만은 여기서 밝혀 둘 필요가 있다. 漢字의 새김이 一般 語彙보다 保守性이 있음은 筆者가 이미 논한 바와 같다.⁽³⁾ 그런데 이 光州刊本の 새김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傍證을 제

(2) ‘上’에 ‘保管’의 뜻이 있는 예에 대해서는 安秉禧教授(1976)와 藤本幸夫教授(1980)가 지적한 것이 있다.

(3) 이 光州刊本에는 ‘○’을 써야 할 곳에 ‘△’을 쓴 예도 더러 보인다. 翫시길극(9), 名실홀명(9), 易 밧쓸씩(34), ‘口십구’(34), 腸 새당(34) 등.

(4) 자세한 것은 拙著(1971), 拙稿(1972) 참고.

공해 주는 책으로 百聯抄解(東京大學本)를 들 수 있다. 이 책의 새김은 徐在克教授의 자세한 研究(1973)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지만, 光州刊本 千字文에 特有하다고 생각한 몇 개의 새김이 놀랍게도 이 책에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鳳새봉, 處바라쳐, 正 몬정, 不 안득불, 杜진들위두 등. 이러한 一致는 光州刊本 千字文의 새김이 지녀온 孤立性을 벗겨준 점에서뿐 아니라 이러한 새김들이 16世紀에 행해졌음을 立證해 주는 점에서 莫重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東京大學本 百聯抄解에는 刊記가 없으나 安秉禧教授(1979)는 이 책이 “16世紀 中葉 이후의 長興板”이 아닌가 推定하고 이 책의 편자로 알려진 金麟厚가 全羅道 長城 出身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임을 지적하였다. 아마도 光州刊本 千字文이나 百聯抄解(東京大學本)에서 보는 새김이 16세기에 全羅道 地方에서 행해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3

위에서 말한 光州刊本과 비슷한 千字文 一冊이 日本 東京의 大東急記念 文庫에 있음이 1977年 藤本幸夫教授의 調査로 밝혀졌다. 國內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책이 日本에 또하나가 있다는 사실도 놀랍거나와 이 大東急本の 木板本이 光州刊本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 또한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大東急本은 책 보기에는 光州刊本과 같은 책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지만, 서로 다른 板本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筆者는 이 책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 사진을 보았을 뿐이지만,⁽⁵⁾ 漢文 大字와 釋音 表記에서 光州刊本과의 差異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 大東急本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價値를 지닌은 말할 것도 없지만, 光州刊本이 지켜온 孤立性을 벗겨준 점에서도 큰 重要性을 지니는 것이다. 光州刊本과 大東急本の 存在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런 系統의 千字文이 一時 상당히 (아마도 全羅道 地方에) 유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두 책의 比較를 통해서 어느 한 책만을 본 때보다는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大東急本에는 刊記가 없다. 이것이 이 책에 관한 연구

(5) 이 사진은 日本에서 간행된 朝鮮學報 93호(1979)에 실려 있다.

에 큰 장애가 된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 책을 實査한 藤本幸夫教授의 論文(1980)에 보이지만, 이 책의 인쇄가 좋지 않으며 誤刻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책은 본래 인쇄가 선명치 않은 책에 의거해서 覆刻한 것의 後刷本일 것이라고 推定하였다. 그러면서도 藤本教授는 “壬辰 以前의 刊本임은 확실하며 16世紀 中葉 또는 그 以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책과 光州刊本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이 책의 刊行이 오히려 앞선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筆者는 먼저 이 두 책의 內容을 검토하여 그 刊行의 先後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말해 두고 싶다. 藤本教授는 세밀한 검토 끝에 大東急本の 刊行이 더 이르다는 推定을 하고 있지만, 事實들이 자못 복잡하고 미묘하여 간단히 어떤 結論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여기서 잠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들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에 대하여

光州刊本에 나타나는 ‘△’의 예는 위에서 보았거니와, 大東急本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差異가 드러난다. 光州刊本에 ‘△’을 유지한 예들 중에서 大東急本이 ‘○’을 보여주는 예로는 ‘日날일’ (1), ‘富가○별부’ (22), ‘威아○음척’ (35) 등이 있다. ‘榮비을영’ (13), ‘牧모일목’ (15)도 15세기나 16세기 초엽의 문헌에서는 ‘빚을, 모실’로 표기된 예들이다. 한편 光州刊本이 ‘○’을 보여주는데 大東急本이 ‘△’을 보여주는 예로는 ‘人사름인’ (4), ‘嘆ㅅ실영’ (12), ‘兒아희수’ (15), ‘規여슬규’ (16), ‘隱그슬은’ (16), ‘造지슬조’ (16), ‘頓눈슬돈’ (36), 照ㅅ슬조(41) 등이 있다. 이로써 보면 大東急本이 ‘△’을 다소 많이 보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數的 差異로 年代의 先後를 논하는 것은 無意味하다. 실제로 이 大東急本에는 본래의 ‘○’이 ‘△’으로 잘못 표기된 예들이 光州刊本보다 오히려 많음을 본다. 例, 羔섬고(9), 羊섬양(9), 因지름인(10), 逍아스라슬쇼(32), 遙아스라슬쇼(32), 易ㅅㅅ슬(33), 口ㅅㅅ(34) 등. 이들 예는 大東急本이 간행된 시기에 ‘△’에 대한 意識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6)

(6) 大東急本에는 ‘麗나소머를러’ (2), ‘每ㅅ슬미’ (40)에도 ‘△’이 보인다. 이들도 잘못된 用法인 듯하나 後考를 기다린다.

(2) 疊字符號(≡)에 대하여

大東急本에 이 符號가 사용된 것은 매우 특이한 사실이다. 두가지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이 부호는 이 책의 前半에는 보이지 않고 그 後半에만 나타난다. 前半에서 보면 ‘讓시양양’(4), ‘唐대당당’(5), ‘福복복’(10), ‘則법즉즉’(11), ‘業업업’(13), ‘枝가지지’(16), ‘甲갑갑’(19)등에서 당연히 이 부호가 사용됨직한데 한번도 사용된 예가 없는 것이다. 이 부호의 예는 이 책 21장의 ‘漆옷칠 ≡’에서 처음 나타난다.⁽⁷⁾ 둘째, 寡見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筆者는 아직 15·16世紀의 한글 문헌에서 이 부호가 사용된 예를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어느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앞으로 조사해 보아야 알겠으나, 後代의 小說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본래는 이런 부호가 없던 책인데 覆刻하면서 일손을 덜기 위하여 이 책의 後半部에서 이 부호를 사용한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藤本教授는 이 부호의 사용을 이 책의 이른 成立의 한 증거가 될 수 있는양 말하였으나, 이 부호의 사용은 오히려 이 책이 16세기에 간행되었다는 주장에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된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3) 釋音 表記의 方向에 대하여

大東急本에서 釋音이 전반적으로 右에서 左로 한글로 橫書되어 있음은 光州刊本과 같은데, 藤本教授는 反對 方向 즉 左에서 右로 橫書된 예와 부분적으로 縱書된 예가 간혹 보이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은 右에서 左로 한글로 새기는 법이 固定되기 이전의 初期 形式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였다. 그러나 이런 推理는 용납되기 어렵다. 左에서 右로 橫書된 3例는 ‘歸도라갈귀’(6), ‘樓다라루’(19), ‘論말습논’(31)인데, 이중 처음 2例는 光州刊本の ‘歸갈귀’, ‘樓룻루’와는 다르고 石峯千字文의 ‘歸도라갈귀’, ‘樓다라루’와 일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本稿에서 논할 바와 같이, 石峯千字文과의 一致는 심상치 않은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위

(7) 이 後半部에서도 ‘庸둥용용’(29)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藤本教授의 目錄에는 ‘答 더답 ≡’(38)이 빠져 있다. 이 目錄에는 ‘俗속속 ≡’(39)이 들어 있는데 이 예는 ‘飯밥반 ≡’(3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잘못 표기된 경우다.

의 2例에서 하필 이런 一致가 보인다는 사실은, 이들의 본래의 釋音을 나중에 수정하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새긴 것으로 보게 한다. 上下로 새긴 것 중에도 ‘佳아름다올가’ (38)는 石峯千字文의 것과 일치한다. 光州刊本에는 ‘도홀가’로 되어 있다. 때로 上下로 새긴 것도 後代의 板刻에 있어서의 不注意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지 않은가 한다.

(4) 用言 語幹만의 새김에 대하여

光州刊本에 ‘暻해아리랑’ (9), ‘승희령’ (13), ‘解그르히’ (31) 등이 있다. 이들은 用言 語幹이 아무런 語尾도 없이 새김으로 쓰인 것처럼 보인다. 藤本教授는 이런 예들이 오히려 오랜 것으로 보고 이런 예들이 大東急本에 더 많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위의 예들에서 새김이 모두 母音으로 끝난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稱잇ㄴ르친’ (3), ‘載시르지’ (28), ‘每니으리’ (40) 등을 보면 본래의 語幹에 連結母音만이 붙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매우 暗示的이다. 본래는 ‘-을/을’ 어미가 붙었었는데 ‘ㄴ’이 탈락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위의 ‘해아리랑’ 등서에도 본래는 ‘-ㄴ’ 어미가 있었던 것이 탈락했다고 봄이 온당할 것이다. 따라서 ‘-ㄴ’이 없어진 쪽이 도리어 後代의임을 알 수 있다.

筆者는 여기서 金履峽翁이 발표한 平安北道 江界 地方의 千字文(1980)에 주목한다. 이 지극히 흥미깊은 資料에 대해서는 앞으로 別稿에서 자세히 논하려 하지만, 여기에는 ‘黃누루황, 閨부리윤, 致너리티, 殊다리수’와 같은 예들이 많다. 이들은 외우는 과정에서 脫落된 것이다. 第二音節의 母音이 ‘이’로 변한 사실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光州刊本과 大東急本에 ‘잇ㄴ르친’ (3)으로 되어 있는 ‘稱’이 이 千字文에서는 ‘이까랑칭’으로까지 변했음을 본다. 이렇게 볼 때, 外形上 用言의 語幹形으로 보이는 것은 실은 ‘ㄴ’이 탈락된 것들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런 탈락형은 후대로 내려올수록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光州刊本과 大東急本の ‘而마리아’ (14)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기로 한다. 石峯千字文의 ‘而말리을이’ (14), 江界千字文의 ‘말니이’와 견주어 볼 때, 위의 ‘마리’는 ‘말 니을 > 말 니을’로부터 ‘을’이 磨滅된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새김일수록 이런 磨滅이 심한 것은 千字文 맨끝의 ‘焉, 哉, 也’ 등의 ‘입것’이 現代에 와서 ‘이

끼'로 된 것을 보아도 수공이 된다.

(5) 새김에 대하여

大東急本の 새김은 光州刊本の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도 상당수에 달한다. 藤本教授는 이 차이를 긴 表로 보이고 대체로 大東急本の 새김이 光州刊本の 그것보다 옛스러운 樣相을 띠고 있다고 결론하였다.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어떤 점이 그런 印象을 주었는지 알 수 없음이 유감이다.

그런데 이 두 책의 새김을 놓고, 어느쪽이 더 保守的인가를 알아내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다. 정확하게 그 保守性을 測定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는 어느쪽이 古形이요 어느쪽이 新形임을 判定할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많은 경우 이런 判定이 어렵다. 더구나 全體的인 保守性을 判定하기란 더욱 어렵다. 筆者는 막연한 印象에 의하여 保守性을 判定하기보다는 차라리 決定的인 新形들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서 위의 兩本과 石峯千字文을 비교해 보는 것이 흥미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兩本에서 공통적인 것은 제쳐놓고 서로 다른 새김들에 대하여 어느쪽이 얼마나 石峯千字文과 일치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물론 石峯千字文과 같은 새김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다 새 새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중에도 오랜 새김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런 비교에서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筆者가 조사한 바로는 光州刊本과 石峯千字文의 一致例는 33이요 大東急本과 石峯千字文의 그것은 23이다. 數는 前者가 많고, 大東急本이 간혹 잘못된 새김을 보여주는 점이 주목되기도 한다. ‘孰 니글숙’ (23), ‘絳 누릴강’ (33), ‘烹 슬핑’ (34) 등. ‘萬 구름만’ (7)과 ‘嫡어늘덕’ (37)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려우나 매우 주목할 만한 옛 새김이 아닌가 하며, ‘榮 비을영, (13), ‘卑 늦가올비’ (14), ‘惠 저즈릴혜’ (24) 등도 옛스러운 것들이다. (光州刊本과 石峯千字文에는 ‘榮영화영’, ‘卑나올비’, ‘惠은혜혜’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光州刊本에서도 ‘律법뜰뜰’ (2), ‘呂법뜰려’ (2), ‘陽나미양’ (2), ‘積물적’, ‘羅쇠롱라’ (221), ‘輦슬위련’ (22), ‘每니으미’ (40)⁽⁸⁾, ‘修

(8) 訓蒙字會(初刊本 下11)에 ‘每 물리 輦也 又上聲常也 니슬미’라 있음을 참고.

길슈' (41) 등이 옛스러운 것으로 주목된다.

여기서 筆者가 가장 중요하게 문제삼는 것은 이런 石峯千字文과의 一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나 石峯千字文을 보고 고쳤을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정도의 一致로 光州刊本이나 大東急本の 刊行에 있어 石峯千字文을 참고하였다고 결론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지나친 추측이라고 하겠다. 만약, 石峯千字文을 참고했다면 훨씬 더 많은 새김이 고쳐졌을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筆者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拙稿 1972), 새김의 개신이란 언제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光州刊本이나 大東急本도 이러한 새김의 개신을 채택하였고 石峯千字文도 그것을 채택한 결과, 이와 같은 一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光州刊本에 '徒법찰률' (2), '呂법찰려' (2)로 있는 것이 大東急本에 '律법측률', '呂법측려'로 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石峯千字文에 역시 둘다 '법측'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光州刊本과 大東急本에 다 같이 '則법측측' (11)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大東急本에는 '矩법측구' (41)도 보인다. 만약 大東急本이 처음부터 위의 새김을 가졌었다면 '법측'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법측'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改新에 말미암은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는 石峯千字文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저 위에서 우리는 大東急本에 釋音表記가 左에서 右로 잘못된 3例중 2例가 石峯千字文의 그것과 一致함을 본바 있는데, 이들 역시 大東急本과 石峯千字文 사이에 심상치 않은 관계가 있었을 可能性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光州刊本과 大東急本에서 新形을 찾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國語史의 觀點에서 보아 그 出現年代가 확실한 新形들을 찾는다면 年代推定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光州刊本과 大東急本の 새김이 보여주는 音韻論的인 事實에 대해서는 위에서 '△'을 비롯한 몇가지에 言及하였거니와, 여기에 다시 몇가지를 추가할 필요를 느낀다. 光州刊本에는 '男아드남' (8)인데 大東急本에는 '아들남'으로 되어 있다. 石峯千字文에도 '아들남'이다. 字音 '남'의 'ㄴ'위에서 '아들'의 'ㄴ'이 탈락한 光州刊本の '아드남'이 전통적인 것인데, 그 'ㄴ'이 大東急本과 石峯千字文에서는 다시 회복된 것이다. 새김과 字音 사

이에서 ‘르’ 탈락은 訓蒙字會나 千字文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실제 光州刊本과 大東急本에는 ‘子 아드즈’ (15)가 보인다. 光州刊本の ‘唐대랑당’ (5)도 매우 흥미깊은 것이다. 이것은 東國正韻 序文에 지적된 ‘次第’, ‘牡丹’ 등과 함께 논의될 성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大東急本에는 ‘대당당’으로 고쳐졌다. 石峯千字文에도 이와 같다. 한편 光州刊本の ‘龍 미르릉’ (4)이 大東急本에는 ‘미르릉’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近代語形 ‘미리’에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大東急本の ‘也입겅야’ (42)는 後述할 石峯千字文 內賜本の ‘입겅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역시 光州刊本の ‘입겅야’에 비하면 新形이다. 大東急本の ‘靑푸똥청’ (26)은, 誤刻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脣音 밑의 母音의 圓脣化를 겪은 것으로 18世紀의 文獻에서나 볼 수 있는 語形이다.

光州刊本이 新形을 보여주는 예들도 있다. ‘劍칼검’ (3)과 ‘根불희근’ (33)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칼’은 禪家龜鑑諺解에서 볼 수 있고 ‘불희’는 小學諺解에서 볼 수 있다. ‘笑 우음소’ (40)도 자못 새로운 語形이다. 訓蒙字會 初刊本에는 아직 ‘우숨’이 보이는데 大東急本の ‘우음’은 ‘우숨’으로부터 ‘우음’에 이르는 중간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6) 漢字와 字음에 대하여

光州刊本과 大東急本の 漢文 大字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光州刊本の ‘紡績’ (35)이 大東急本에는 ‘績紡’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그런데 石峯千字文에도 ‘績紡’으로 되어 있어 大東急本과 一致함을 볼 수 있다. 한편 光州刊本에는 石峯千字文과 같이 ‘璇’ (40)이라 되어 있는데 大東急本에는 ‘旋’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光州刊本の ‘璇’字의 右邊은 나중에 붓으로 써 넣은 흔적이 뚜렷하다.

光州刊本과 大東急本の 字音의 差異 중에서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大東急本과 石峯千字文이 모두 일치하는 사실이 주목된다.

	(光)	(大)	(石)	
育	육	육	육	(5)
賓	빙	빈	빈	(6)
取	취	취	취	(12)
學	학	학	학	(13)
抽	투	투	투	(32)

지금까지 여러 항목에 걸쳐 光州刊本과 大東急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 검토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론의 하나는 大東急本의 成立年代가 光州刊本의 그것보다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두 책 다 16世紀 後半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듯하지만, 大東急本에는 간혹 문제가 될 만한 점도 없지 않음을 우리는 보았다. 이런 점은 앞으로 이 大東急本을 직접 보고 다시 논할 필요를 느낀다.

大東急本이 光州刊本과 同一 系統에 속하는 책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이 책의 出現으로 우리는 이 계통의 千字文이 16世紀 後半 또는 그 이후에 두번 이상 간행되었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光州刊本이 상상도 못했던 새김들을 보여준 기억이 아직도 새로운데 이제 大東急本이 다시 몇개를 더해 주었다. ‘萬구름탄’(7), ‘典노나련’(20), ‘房점방’(35), ‘嬌어늘덕’(37) 등. 이들에 대한 연구는 앞날의 숙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다.

4

石峯千字文이라면 甲戌重刊本밖에 볼 수 없었던 때가 그리 오래지 않은데, 70年代에 들어 壬辰 以前의 板本들이 잇달아 공개되었고 올해 들어 드디어 그 內賜本の 存在가 알려지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內賜本の 出現으로 石峯千字文을 둘러싸고 제기되어온 문제들이 해결을 보게 된 것이다.

筆者는 日本 東京의 內閣文庫⁽⁹⁾에서 본 石峯千字文의 한 善本을 이 책의 初刊本으로 推定했었다. (拙稿 1973) 그 중요한 이유로는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 책의 卷末에 “萬曆十一年正月日副司果臣韓濩奉敬書”란 刊記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런 刊記를 가진 책은 처음이었던 것이다. 이 刊記가 중요한 까닭은 그뒤에 “二十九年辛丑七月日內府開刊”이란 添記가 없는 것이다(甲戌重刊本에는 다시 “甲戌重刊”이라 添記되어 있다.). 여기서 筆者는 石峯千字文의 初刊이 1583年(宣祖 16年)에 이루어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9) 筆者가 이 책을 본 것은 1968年 가을이었다. 그뒤 이 內閣文庫는 日本國立公文書館에 소속되게 되었다. 上記 影印本の 解題를 쓸 때 이 책을 日本國立公文書館本이라 쓴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內閣文庫란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 있으므로 內閣文庫本이라 부르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게 된 것이다.⁽¹⁰⁾ 둘째, 이 內閣文庫本과 羅孫本(金東旭教授 所藏本)을 비교해 본 결과, 前者가 조금 앞선 刊本이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이다. 羅孫本은 그 당시 알려진 國內 現存本 중에서는 가장 오랜 것으로 壬辰 以後의 刊本으로 보아 틀림없는 책이었다.

그런데 그뒤 安秉禧教授(1974)는 內閣文庫에 所藏되어 있는 三種의 石峯千字文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甲本’(필자가 소개한 책)과는 다른 ‘乙本’ 역시 壬辰前에 간행된 책임을 확인하고 이 두 책의 차이로 보아 原刊本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推論한 바 있다. 최근에 安秉禧教授(1979)는 羅孫本이 原刊本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見解를 밝히기도 했었다.

위에 말한 石峯千字文의 內賜本은 慶北 榮州의 朴贊成氏 所藏本이라고 한다. “萬曆十一年七月日 內賜司諫院大司諫 朴承任 千字文一件……”의 內賜記가 있다. 이 책은 趙炳舜선생의 勞苦로 공개되었고 곧 이에 관한 연구가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¹¹⁾

韓石峯이 王命을 받아 千字文을 쓴 것이 宣祖 16年 正月이었는데 이 책은 그해 七月에 大司諫 朴承任에게 內下된 것이니 이것은 原刊本이라고 斷定해도 좋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 내용으로 보아도 이 책이 이미 알려진 어느 책보다도 앞선 것임이 드러난다. 실상 이 책을 始發點에 놓고 볼 때 비로소 여러 重刊本들의 系譜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 內賜本과 筆者가 소개한 內閣文庫本 및 羅孫本の 差異를 검토해 보면 內賜本이 原刊本이요 이에 뒤이어 內閣文庫本과 羅孫本이 차례로 간행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세 책의 차이들을 자세히 보면 앞서 나온 책의 ‘잘못’이 뒤에 나온 책에서 修正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앞 刊行의 修正들이 뒤의 刊本에 계승되므로 여기서 刊行의 先後를 판단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趙炳舜선생의 調査에 의하면 內賜本과 內閣文庫本 사이에는 17군데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10) 종래에는 “二十九年辛丑七月日內府開刊”이란 말에 이끌려 石峯千字文의 初刊을 宣祖 34年(1601)로 推定하여 왔다. 최현배(1942), 小倉進平(1940) 참고.

(11) 이 內賜本の 존재는 東亞日報(1981. 3. 20)의 報道로 공개되었다. 趙炳舜선생의 論文이 書誌學 7호(近刊)에 실릴 예정으로 있다.

	內賜本	內閣文庫本
1. 器	그릇기	그릇의(9)
2. 廉	청렴념	청렴렴(19)
3. 實	염글실	염글실(22)
4. 衡	저울새형	저울대형(23)
5. 頗	즈믄과	즈믄과(25)
6. 云	니늘운	니를운(27)
7. 治	다스리티	다스릴티(28)
8. 翠	프늘취	프를취(32)
9. 阜	이눌조	이를조(33)
10. 夕	나조석	나죄석(36)
11. 賊	도죽적	도적적(38)
12. 盜	도죽도	도적도(38)
13. 嘯	포람쇼	포람쇼(39)
14. 謂	니늘위	니를위(42)
15. 焉	입계언	입겻언(42)
16. 哉	입계치	입겻치(42)
17. 也	입계야	입겻야(42)

이 차이들 중에서 (2)(6)(7)(8)(9)(13)(14) 등은 內賜本の 잘못을 內閣文庫本이 수정한 것으로 보아 옳을 것들이다. (10)(11)(12)도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 이 부류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그밖의 경우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內賜本을 수정한 것이 內閣文庫本이라 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듯이 보이기도 한다. (1)의 경우도 그렇지만, (3)의 경우, 內賜本の ‘염글’이 도리어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15)(16)(17)의 경우는 內閣文庫本の ‘입겻’이 오히려 15世紀의 語形이요 內賜本の ‘입계’는 이보다 後代의 語形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입겻’과 現代의 ‘이끼’의 中間 段階를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흥미깊은 것이다. 위에서 大東急本에 ‘也입겻야’가 있음을 보았는데, 이제 內賜本の ‘입계’와 아울러 생각해 보면, 16世紀 後半에 이런 語形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들에서 內閣文庫本の 語形이 때로는 古形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들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이 앞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石峯千字文의 나중 刊本들이 內閣文庫本の 語形들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7·18世紀에 간행된 辛未重刊本,

甲戌重刊本이 위의 예들에서 內閣文庫本과의 一致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羅孫本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羅孫本은 內閣文庫本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1)(2)는 도리어 內賜本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보면 羅孫本이 도리어 內閣文庫本보다 앞서 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筆者가 밝힌 바와 같이 (拙稿 1973), 內閣文庫本과 羅孫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들이 더 있으며 羅孫本의 表記가 모두 後代의 刊本들에 계승된 사실이 重視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內閣文庫本	羅孫本
夙 이늘숙	이룰숙
殊 다늘슈	다룰슈
別 다늘별	다룰별
警 늘날경	늘랄경
俠 썰 협	뵘 협
說 니늘설	니룰설
頗 즈모파	즈모파

이 항목들은 羅孫本이 內閣文庫本보다 뒤에 간행된 것임을 의심할 수 없게 한다. 다만 위에서 말한 ‘器’와 ‘廉’의 兩項이 문제로 남는데, 아마도 羅孫本을 간행할 때 이 兩項에 있어서는 도리어 內賜本의 것이 ‘옳다’고 판정되어 다시 복구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여튼 이 兩項에 있어서는 後代의 刊本들이 羅孫本과 一致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釋音 表記가 있는 千字文으로는 石峯千字文이 오랫동안 대표적인 책으로 重刊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이밖의 千字文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筆者가 本稿의 첫머리에 말한 影印本에 넣은 註解千字文이 그 一例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刊行은 요컨대 石峯千字文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千字文에 대한 충분한 理解에 도달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오늘날은 국민 교육이 옛날의 그것과는 달라졌지만, 요즈음 市中에 나와 있는 千字文 註解書들도 이러한 흐름을 직접 간접으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5

지금까지 두 계통의 千字文에 대해서, 近年에 새로 발견된 大東急記念文庫本과 石峯千字文의 內賜本을 중심으로 略論하였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에서 釋音 表記를 가진 千字文이 간행된 경위를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낀다.

16世紀는 釋音 表記를 가진 漢字 學習書의 刊行이 유행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訓蒙字會, 親增類合, 千字文이 간행된 것이다. 釋音 表記가 달린 千字文의 간행이 이런 時代 潮流를 탄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千字文이 16세기에 처음 편찬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釋音 表記를 가진 千字文으로는 光州刊本이 가장 오랜 것이다. 宣祖 8年(1575)에 光州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계통의 책이 적어도 한번 더 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大東急記念文庫本이 그것이다. 이 책은 여러모로 보아 光州刊本보다 뒤에 간행된 듯하지만, 이 계통의 책으로 光州刊本보다 오히려 앞서 간행된 것이 있었을 可能性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石峯千字文이 간행되기 이전에 光州刊本 系統의 千字文이 地方에서 행해진 사실이 밝혀진 것은 매우 重大한 意味가 있다. 아마도 이런 地方板의 普及과 石峯千字文의 간행이 無關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 당시 光州刊本 계통의 千字文에 대하여, 그 새김과 字音이 표준삼을 만하지 못하고 漢字의 字形도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評價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當代의 名筆인 韓濩의 글씨로, 표준이 되는 새김과 字音을 달아 千字文을 官板으로 내게 된 것이 아닐까. 이것은 한갓된 억측만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오늘날 전하지는 않으나, 그 刊行에 관한 기록이 전하는 千字文에 대해서 略述하는 것으로 本稿를 끝맺기로 한다. 黃胤錫이 華音方言字義解(頤齋遺稿 卷25)에서 든 “嶺南印本 千字文諺解”가 그것이다.

黃胤錫은 高句麗軍이 唐軍의 공격을 완강히 물리친 城이 遼東의 鳳凰城이라는 說에 대하여 ‘鳳’과 ‘凰’의 새김과 ‘安市’의 一致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는 먼저 “蓋我國鳥雀禽佳四字 並呼沙伊(合引) 而鳳凰二字呼亦如之”라 하고 ‘沙’와 ‘安’, ‘伊’와 ‘市’의 初聲은 서로 혼동되는 예가 있다고 하였

다. 이 설명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지만, ‘鳳’과 ‘凰’의 새김이 ‘새’라고 한 그의 證言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光州刊本 계통의 책에 ‘鳳새봉’이 있을 뿐인데 黃胤錫이 이 새김을 알고 있었음이 주목되는 것이다. 그런데 黃胤錫은 다시 “或云 曾見嶺南印本千字文諺解 蓋以安市二音釋鳳字 蓋嶺南古語也”라고 하였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보인다. “鳳今止曰새 或曰 新羅古語云 아시새 即어시새 鳳族羽族之長 如君如父 故曰어시 今猶呼父曰어시 或어이 蓋鳳鳥所至輒有百鳥衛繞成群 故字古作朋 而莊子轉作鵬 後又轉借爲朋友朋黨之朋 其實鳳朋鵬三字非別字也 或又因아시之聲 以遼東之安市城爲今鳳凰城柵門之古名 然唐書安市亦作安地安寸 竟未知當從何呼耳”. 이로써 보면 위에서 ‘鳳’의 새김이 ‘安市’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는 ‘아시’가 아닌가 한다. 黃胤錫은 이 ‘아시’를 ‘어시’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 뜻을 ‘父’라고 하였는데, ‘아시’가 곧 ‘어시’라고 한 것도 문제지만, 中世國語의 ‘어시’는 ‘母’와 親’을 뜻한 것으로 ‘鳳’보다는 ‘凰’에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던 현재로서는 이런 설명의 當否보다도 ‘안시’란 ‘鳳’의 새김이나 ‘아아새’란 말 자체의 存否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寡見의 탓인지 모르나 筆者는 朴趾源의 熱河日記(渡江錄)에서 이와 비슷한 말이 있음을 보았을 뿐이다. “方新築鳳凰城 或曰此則安市城也 高句麗方言 稱大鳥曰安市 今鄙語 往往有訓鳳凰曰安市 稱蛇曰白巖 隋唐時 就國語以鳳凰城爲安市城以蛇城爲白巖城 其說頗似有理”. 여기서 高句麗 方言이라 한 점이 다르기는 하나 ‘鳳’과 ‘凰’을 가끔 ‘아시’라고 새긴다고 한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다른 어느 문헌이나 방언에서 이런 말이 확인된 일이 없어 이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느낌이 있다.

정작 本稿의 關心의 焦點은 黃胤錫이 말한 “嶺南印本 千字文諺解”에 있다. 이 책이 언제 간행된 것인지도 알 길이 없으나, 이 책이 발견된다면 아주 흥미깊은 사실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이 책이 가까운 장래에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參 考 論 著

- 金履浹 1980. 平北方言 千字文. 方言 3.
- 徐在克 1973. 百聯抄解의 釋에 관한 研究. 韓國學論集 1.
- 安秉禧 1974. 內閣文庫所藏 石峯千字文에 대하여. 書誌學 6.
1976. 呂氏鄉約諺解 解題. 東洋學叢書 5.
1979. 中世國語 文獻 解題. 奎章閣 3.
- 朴基文 1971. 訓蒙字會 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5.
1972. 漢字의 釋에 관한 研究. 東亞文化 11.
1973. 千字文 解題. 東洋學叢書 3.
- 趙炳舜 近刊. 原本 石峯千字文에 대하여. 書誌學 7.
- 최현배 1942. 한글갈. 正音社.
- 藤本幸夫 1980. 朝鮮版 千字文의 系統. 朝鮮學報 94.
- 小倉進平 1940. 增訂朝鮮語學史. 東京.